

국내 휘발유 가격 10주 연속 하락

지난주보다 6.3원 내려 1902.6원

광주 평균 1876.5원·전남 1898.6원

국내 전국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며 1902.6원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3원이 내린 1902.6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1주 이후 10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자동차용경유도 전주 대비 4.6원 내린 1708.0원을, 실내등유도 지

난주 대비 0.3원 내린 1351.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1971.2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충남(1916.2원), 강원(1915.7원)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1866.0원), 광주(1876.5원), 경북(1888.3원) 등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비교적 저렴했다. 전남 지역은 1898.56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최고와 최저 가격차는 휘발

구분	'12년	13년 8월	9월 4주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전주대비
보통휘발유	1,985.8	1,947.7	1,929.9	1,918.8	1,908.9	1,902.6	↓ 6.3
자동차용경유	1,806.3	1,743.6	1,730.7	1,720.9	1,712.6	1,708.0	↓ 4.6
실내등유	1,394.1	1,359.3	1,356.1	1,355.9	1,352.0	1,351.7	↓ 0.3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유의 경우 105.3원(서울-대구), 경유는 108.7원(서울-대구)이었다. 하지만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하락 4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조만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ℓ 당 26.3원이 오른 873.5원을 기록했

았다. 정유사별 최고와 최저 가격 차이는 휘발유의 경우 12.4원, 경유는 28.3원, 등유는 19.1원으로 전주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미국 임시 예산안 증액 합의 및 채무 불이행 우려 완화 등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내주 이후부터 일정부분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동통신 시장 성장 한계 우려

스마트폰 가입자수 증가폭 지난해의 절반

올해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분기당 평균 254만명씩 늘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결과로 추산하면 분기당 135만명 수준에 그쳤다. 가입자 증가폭이 지난해의 53.1%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7~8월 두 달간 늘어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76만명에 불과해 3분기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폭은 10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에는 분기 평균 4.5%포인트씩 늘어났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는 1.9%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를 맞이하면서 이통사 스마트폰 가입자 수에서도 시장 정체 경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정체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이동통신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

이며, 이는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4.8%와 견줘 4.6배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SA는 올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9.5%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지난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출시된 2010년 6월부터 증가폭이 커졌다. 여기에 2011년 7월 통털에불루션(LTE)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LTE 전 시장 정제 경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정체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이동통신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

가맹점 거리제한 사실상 폐지

영업지역 설정 방식 대체

동일 브랜드 가맹점 신규 출점 시 적용됐던 일괄적인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합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바 있다. 업종별 상위 브랜드들에 적용된 모범거래기준은 편의점 250m, 제과·커피 피전점 500m, 치킨 800m, 피자 1

천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런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됐다. 구속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기존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며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서에 포함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만료 시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1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후 새로 가맹점 출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합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독 수교 기념 폭스바겐 전시

2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민광장에서 한·독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독일 '폭스바겐' 차량을 전시하는 '독일 오토 페스티벌'이 열려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수입맥주 비중 확대 뒤엔 '국산 역차별'

출고가격 명시 국산에만 적용 불이익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입맥주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국산 맥주에만 적용되는 프로모션 제한 규정 이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지속적인 프로모션 덕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A대형마트에서 전체 맥주 판매량 가운데 수입맥주 비중은 지난 2010년 10.7%에 그쳤으나, 2011년 14%, 지난해 16.7%까지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9월까지 21.1%에 달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을 보면 국산맥주의 경우 1분기에 -10.2%, 2분기 -8.5%, 3분기 -9.5%로 매출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1분기 매출이 24.5% 늘어났는데 이어, 2분기에는 31.5%, 3분기에는 47.9%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B편의점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올초 20.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 8월부터는 25%를 웃돌고 있다. 이런 수입맥주 강세는 판매가격을 내리는 형태의 프로모션 덕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균일가 기획전'을 통해 수입맥주를 정상이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하이네켄', '아사히슈퍼드라이', '샷포', '코로나' 등 11종은 1캔당 판매가격이 2000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격할인이 가능한 것은 수입맥주의 경우 정해진 출고가격 정보가 없어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할인판매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고가격이 명시된 국산맥주는 국제점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고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라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정품도 줄 수 없다. /연합뉴스

국제관계배수위 광주총회 공동조직위장에 이상무 사장



한국관계배수위원회(KCID)는 20일 지난 18일 의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을 '2014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 ICID 광주총회 조직위원회는 이상무 사장과 박재순 전 사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조직위원회회의를 갖고 내년 총회 세부 계획과 프로그램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상무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구

촌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식량과 수자원 확보의 문제”라며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ICID의 활동과 내년 광주총회 개최가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순 공동조직위원장은 “앞으로 내년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9월 14일부터 1주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4 ICID 광주총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주최로 농업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 전세계 60여개국 1200여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식량과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hwangchilnara.kr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현역력
이보다더 좋을 순 없는데...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여수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나라(주)
전라남도 장흥읍 해당리 69-3